

<사탄의 궤계>

작성일 : 2010. 01. 28. (목) 오전 8~10시

작성자 : 장정희 (경남 진해반석교회)

[내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후 저를 더 성장시켜주신
주님, 선생님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궤계 7가지

염려 / 시기 질투 / 교만 / 서운함 / 오해
무지 게으름 / 분노 혈기

너희 마음에 들어와 너희를 죄짓게 하여
너희 영과 육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궤계를 지금 나 예수가 밝히겠노라.

1. 염려

2010년. 섭리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한
사탄의 궤계 중 첫 번째가 염려이니라.

염려는 사탄의 흠모 대상인 죄를 낳는다.
염려하니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하며 오해하고 미워하며
더러는 자신을, 타인을 죽이기까지 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
타인의 목숨을 해하는 자,
그 죄악의 출발점은 항상 염려였다.

너희는 사탄의 첫 번째 궤계인
그 염려에게서 속히 탈출하라.
탈출 방법은 사탄과 싸워 승리한 나에게
그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선생 통해 전한 주일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말씀을 눈과 혀가 닳도록 보고 읽어 마음 판에 새기어라.

2. 시기질투

시기질투는 사탄의 시조 루시퍼가
에덴동산에서 행한 죄악으로
너희의 시기질투 하는 마음의 행위 뒤엔

항상 사탄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마라.

시기질투는 사탄들의 힘의 원천이다.

그들을 뚫게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사탄들은 그 시기질투의 힘으로 고생을 마다않고

지금 나의 왕국 섭리사를 무너뜨리려 날뛰고 있다.

아버지와 나 예수와 너희 선생과 너희를 시기질투하며

자기의 왕국 지옥을 번성케 하겠노라며

이 시간도 두 눈 부릅뜨고

너희의 시기질투 하는 마음을 사냥하기 위해

너희를 쫓고 있다.

그러니 시기질투 하는 너희의 그 마음 어서 버려라.

지옥이나 천국이나 너희의 구원이 달려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너희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어서어서 그 마음을 버려라.

시기질투를 버린다는 것은

그 마음을 사랑과 긍휼로 변화시키라는 말이다.

나 예수의 마음이 너희 마음에 거하면

시기질투는 사랑과 긍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내 마음을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회개부터 하여라.

회개의 출발점은 시기질투 하는 마음을

시인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눈물겹게 회개하라.

나 역시 형제들의 시기질투로 십자가 형극의 길을

걸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눈물과 슬픔으로 회개하라.

뜨겁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나 예수의 이름이

너희 마음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고

너희의 마음에 진실 되고 뜨거운 회개의 불을 일으켜

사탄들을 녹아내리게 할 것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비워진 너희의 마음엔

사랑과 평화와 긍휼이 물결칠 것이다.

시기질투를 영원히 버리고 싶으냐.

그러면 시기질투의 아버지인 교만을 버려라.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꾀계이니라.

3. 교만

루시퍼가 어찌하여 인간들을 시기질투하게 되었느냐.
바로 교만이었노라.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상대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

절대적인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공의롭고 온전하게 내려주시는 사랑을 말함이며
상대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물로부터 창조된 목적에 맞게
개성대로 받으시는 사랑을 말함이다.
이 절대적인 사랑과 상대적인 사랑이 조화되어
영계와 육계가 존재한다.

그는 이 상대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감수성을 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노라.
생각이 죄를 지으니 그는 바로 타락하게 되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타락이다. 이성범죄이다.
타락은 마음 타락이 먼저이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사랑해선 안 될 인간들을 탐하였다.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여 지금도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사탄의 왕국에서 지옥의 하나님이라며
군림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을 타락시키는 그 교만함을 버리어라.
교만은 나와 아버지와 선생이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교만한 자, 결코 내 앞에 아버지 앞에 선생 앞에
설 수 없노라.

선생은 지금도 지극히 높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극히 낮은 자 되어 너희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하였다.

지극히 높은 자인 내가 지극히 낮은 자인 너희 되어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노라.
기쁨과 사랑으로 말이다.

4. 서운함. 사랑의 감수성.

교만이 시기질투의 아비라 하면
서운함은 시기질투의 어미라 할 수 있다.
서운함이 교만과 만나 시기질투를 낳았다.
교만이 거칠고 단단한 남자의 속성이라면
서운함은 예민하고 연약한 여자의 속성이라 일컬을 수 있다.

둘 다의 공통점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기에
교만과 서운함은 일방통행이다.
상대와 함께 달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달린다.

가끔 상대를 의식할 때도 있다.
자신과 상대를 비교할 때.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편협한 시각으로서 말이다.

사탄의 네 번째 꾀계, 서운함은
너희 영육의 뼈를 썩게 만든다.
너희 마음을 염려케 하고 불안으로 요동치게 만든다.
정신과 생각이라는 너희 마음을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여
온갖 오해와 불신을 낳게 한다.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 예수를 사랑하라.
나 예수를 사랑하면 자신도 상대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교만과 서운함은 다 없어진다.
사랑이 바로 나 예수이기에
나 예수가 교만과 서운함의 탈을 쓴 사탄을 물리친다.

5. 오해

시기질투와 교만과 서운한 마음이 그리는 상상의 세계,
오해.
그 상상이 현실인양 착각하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지옥행 급행열차, 오해.
그 오해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온전히 고쳐라.

오해의 희생양이 바로 나 예수가 아니더냐.
지금 이 시대 오해의 희생양은 바로 선생이다.
너희와 세상의 오해로
선생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부흥강사도 수련원원장도 교단과 각종 형제들이
오해로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오해는 사탄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꾀계이기에
그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근본인 나 예수가 풀어주고
오해 받는 사람이 용서해주면 풀릴 수 있다.
너희가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일 때
사망으로 가는 너희 오해자들이 생명 길로 돌아올 수 있다.

오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6. 무지 게으름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지하니
오해를 낳는 것이다.
2천 년 전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무지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 시대 관원들도 선생에 대해 무지하고
너희도 뜻에 대해 무지하니
선생이 그 길을 가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의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 또한 너희에 대해 무지하니
너희를 오해하여 너희 또한
나와 선생이 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무지는 오해를 낳으니 너희는 알고 행하여라.
나에 대해 알고 선생에 대해 알고 형제들에 대해 알아
사탄의 육신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선생을 통해 선포되는 주일, 수요 말씀을 생명 시 할지어다.
말씀이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이다.
말씀이 나이니 나 예수란 무기를

항상 너희 마음이 지니어 사탄을 온전히 무찔러라.

게으름이 무지를 낳는다.

게으른 자, 결코 무지에서 나올 수 없다.

오직 부지런함으로 무지에서 앞으로 탈출할 수 있노라.

부지런히 말씀 보고 그 말씀 실천하는 자,

결코 무지해서 지옥 길로 가는 자 없으리라.

날마다 생명길로 달려갈 것이니라.

7. 분노 혈기

루시퍼가 타락시킨 아담 하와의 자식 가인이

분노와 혈기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냐.

2010년 뿐 아니라 6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들은 이 분노와 혈기로 우리 섭리사를 대적할 것이다.

사탄은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이며 무엇에 대한 혈기이냐.

바로 천국!

천국을 가지 못하는 분노이며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혈기이다.

그것은 천국의 본체인 나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며 혈기이다.

그들과 싸워 영원히 승리한 나 예수에 대한

분노와 혈기이다.

나 예수에게 영원히 패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혈기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

나 예수를 대적한다.

너희 마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

너희를 나 예수와 대적하게 만든다.

너희의 그 분노와 혈기의 근원은

바로 나에 대한 사탄의 분노와 혈기이니

너희는 어서 그 분과 혈기를 내려놓아라.

너희들 중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신부는 신랑을 대적하지 않느니라.

사탄이 너희 통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사탄의 궤계를 깨닫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고

사랑과 평강 안에 거할지어다.
천국에 거할지어다.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면
너희 마음은 천국이 되어 나를 만날 수 있으니,
나와 일체된 것이니
너희는 어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 영 혼 육을 천국으로 이끌겠다.

사탄의 비밀을 풀어주고 그들의 꾀계를 알려주는 이유는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고자
함이니
너희는 사탄을 너희 마음에서 쫓아내고 나의 평강에 거하라.

너희 선생은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사탄과 싸워 이긴 승리자이기에 내가 내 육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그를 표상으로 삼고 따라 오너라.
안녕!
영원한 승리자 나 예수가